

## 이상(李箱)의 권태\*

구 연 상(항공대 연구교수 / 철학)

【주제분류】 현상학, 해석학

【주 제 어】 권태, 권태의 형식, 기분성격, 권태거리, 권태까닭, 시간죽이기, 이상(李箱)

【요 약 문】 이 글에서 나는 하이데거의 권태 분석을 참고로 하여 그리고 권태의 기분 열개에 맞춰 이상(李箱)의 권태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하이데거는 권태를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 형식은 “어떤 것[권태스러운 것]에 의해 권태롭게 됨”으로 정식화되었고, 두 번째 형식은 “어디[저녁 초대 자리]에서 권태로워함”으로 명명되었으며, 세 번째 형식은 “그것이 누군가에게 권태롭다”는 표현을 통해 제시되었다.

기분의 열개에 따를 때, 이상(李箱)의 수필 「권태(倦怠)」에서 ‘권태거리’는 ‘단조로운 것’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 단조로움은 ‘같은 상태의 되풀이’를 뜻한다. 그리고 권태의 기분성격은 “어서”와 “차라리”라는 두 낱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희귀한 검손”이라는 이상(李箱) 자신의 표현을 통해 규정될 수 있다. 시인이 처한 권태의 기분 성격은 결국 “암흑 같은 미래에 사로잡힌 채 두려운 공허 속에 빠져 들어 있음”으로 밝혀졌다. 또 권태의 시간 성격은 “마냥—지루함”과 “이윽고—방식”이라는 말을 통해 해명되었다. 마지막으로 권태의 까닭은 “모든 것에서 절연된 생활”에서 찾아졌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5-075-A00040)

## 1. 들어가기

여기서 나는 시인 이상(李箱)이 말하고자 했던 권태 현상을 맑혀 보고자 한다. 맑힌다 함은 흙탕물처럼 된 것을 가라앉혀 속이 들여다보이게 만든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의 **맑힘**은 시적인 꾸밈(장식, 裝飾) 속에 가려진 속살 같은 속뜻을 드러내어 이해의 밝기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흔히 말하는 **개념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의 생각을 모두잡기(개념화)하는 철학의 작업과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써 건립하는 시적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은 경계만 허무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를 감행하는 까닭은 우리들 자신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근본 기분’을 보다 철저히 깨워 보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다.

만일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근본 기분**이 ‘권태’라는 낱말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권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거나 권태를 죽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고, TV를 통해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오락 채널을 통해 쉴 수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일상은 권태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아니, 끝없이 다양해지는 볼거리와 들을 거리의 홍수 속에서 권태는 들어설 자리조차 없어 보인다. 우리는 휴식을 취하면서까지 게임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수다를 떨거나 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권태로울 시간은 설 땅이 없다. 우리의 삶은 숨 가쁘게 돌아간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늘 바쁘다. 어린아이들조차 할 일에 쫓기면서 살아간다. 시간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다. 자기 삶에 권태를 느낄 만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물며 권태가 어떻게 시대의 기분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권태라는 기분은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기분** 가운데 하나

다. 권태는 그것이 일어나기만 하면 피할 길이 없다. 따라서 ‘권태 피하기’는 권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고개를 들고자 하는 권태를 억누르거나 잠재워 버리는 것을 뜻한다. 권태는 거둬 되살아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권태가 되살아날 수 없도록 권태를 죽여 놓아야 한다. ‘권태 죽이기’를 위해 우리는 각종 오락거리를 찾아 나서거나 유흥거리에 빠져들거나 매혹을 당하고 싶어 한다. 오늘날 우리의 바쁨은 이러한 매혹의 결과, 달리 말해, 권태의 숨겨진 위력(威力)에 대한 증거일 수 있다.

나는 먼저 권태 죽이기의 세 가지 모습을 통해 근본 기분으로서의 권태를 드러내는 하이데거(M. Heidegger: 1889-1976)의 권태 분석을 짚막하게 소개할 것이다. 이는 권태 현상을 한정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권태를 시대의 기분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하이데거의 권태 분석에 따를 때, 권태는 특정 대상으로부터 말미암을 수도 있고, 상황 전체로부터 피어오를 수도 있으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원인 없이 일어나는 권태일수록 깊은 권태가 된다. 깊은 권태는 맞서 싸울 대상조차 없기 때문에 물리치기 힘들 뿐 아니라, 그것이 물러가고 나서도 우리가 그것의 정체를 알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재미를 추구하게 된 까닭이 우리들 자신이 근본적으로 권태의 기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화의 열망이 강렬했던 시기나 산업화의 목소리가 드높았던 시대에 우리는 재미 찾기를 부끄러워하면서 투사이거나 일꾼이기를 꿈꿨다. 그러한 시대는 우리에게 권태로울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격동의 시기에도 권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권태는 우리에게 여가(餘暇)가 주어질 때에만 피어날 수 있다. 이는 권태와 시간이 밀접(密接)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이상(李箱)의 수필 “권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관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수필에서 권태는 넘치는 시간 때문에 피어난다. 시간이 남아돌게 된 표면적인 까닭은 이상(李箱)이 요양(療養)을 위해 시골로 내려와 있었다는 데 놓이지만, 보다 깊은 차원에서 보자면, 이상(李箱)이 살던 당사가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던 시절, 즉 조선의 지식인들로서는 마음 놓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암흑의 시절**이었다는 데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이상(李箱)에 따를 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없는 무의미한 시간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의욕할 수 없는 ‘극-권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는 권태의 동물을 상징하는 소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무기를 망각한 채 그 무의미한 시간 자체에 대해 저항하려는 생각조차 스스로 단념해 버린다. 권태란 무기력의 원천인 셈이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권태를 드러내기에 앞서 권태에 대한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분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풀어내기

### 1) 권태 현상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

하이데거에 따를 때, **기분**은 우리가 자신이 처한 세계 속으로 나가서 있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통로일 뿐 아니라, 그러한 ‘나가서 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把握)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sup>1)</sup> 기분은 사유나 의지에 따른 일시적 수반 현상(Begleiterscheinung)이나 그러한 것을 불러일으키거나 유지시켜 주는 한갓된 충동(衝動/Antrieb)도, 더 나아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눈앞의 상태(狀態/Zustand)도 아닌, 우리

1) M.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 1998. : “처해 있음[기분] 속에서 현존재는 언제나 이미 그 자신[세계 속에 있음]의 사실 앞으로 데려와져 있으며, 그는 언제나 이미 자신을 발견했다.”(188 쪽) “처해 있음의 기분잡혀 있음이 실존론적으로 현존재의 세계 개방성을 구성한다.”(같은 책, 191)

가 만나는 것들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유하게 조율하여 개방하는 사건이다. 기분으로서의 권태는 우리가 세계와 만나는 하나의 독특한 방식일 뿐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만나는 특별한 방식이기도 하다.

하이데거에 따를 때, 권태(倦怠/die Langeweile)는 ‘즐거운 기분’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분’, 따라서 누군가 권태 속에 처하게 되면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기분’이다.<sup>2)</sup> 파스칼은 권태를 비참한 인생의 허무로부터 오락으로 도피하여 끝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영혼의 상태로 파악한다.<sup>3)</sup> 권태가 피어날 때 우리는 권태가 피어날 수 없는 곳으로 달아나려 한다. 권태는 바로 이러한 피함에 실패할 때 일어난다.

권태가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는 저항한다. 하이데거는 이를 “시간죽이기”라 이름한다. 권태 현상은 우선 시간죽이기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 기분은 인식론적 대상일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기분의 ‘있고 없음’은 인식론적으로가 아니라 기분의 ‘피어나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제시될 수밖에 없다. 기분은, 그것이 피어나기 전에는 마치 잠들어 있던 것과 같다. 이러한 비유에 따를 때, 기분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은 일종의 깨우기라고 할 수 있다. ‘시간죽이기’는 ‘권태 깨우기’로서 권태가 권태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해 주는 방법을 의미한다.<sup>4)</sup>

하이데거는 “권태스럽다”는 말을 “질질 끄는(schleppend)”과 “메마른(öd)”<sup>5)</sup>의 뜻으로 풀이한다.(144) “질질 끄는”이란 말은 “우리를 사로

2) 같은 책: “기분은 내던져져 있음을, 바라보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향하거나 돌아서거나 하는 식으로 열어 밝힌다.”(189 쪽) ‘향함과 돌아섬’은 스피노자가 말하는 ‘추구함과 피함’ 또는 ‘사랑과 미움’에 비교될 수 있다.

3) 파스칼, 『팡세』, 김형길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우리들의 비참을 위로해 주는 유일한 것은 오락이다.…만약에 이것[오락]이 없다면 우리들은 권태를 느끼게 될 것이[다]…그러나 오락은 우리들을 즐겁게 해 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다.”(16-17 쪽)

4)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세계-유한성-고독』, 이기상·강태성 옮김, 까치, 2001. 154 쪽 살핌.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본문 괄호 속에 직접 표기함.

잡지 못하다(*es fesselt nicht*), 즉 “우리가 어떤 책에 몰두하려 하지만, 아무런 감명도 받지 못한 채 그 책에 단지 붙잡혀(*hingehalten*) 있기”만 할 뿐임을 뜻하고, “메마른”이란 말은 “채워지지 않다”, 즉 “우리가 공허해져(*leer gelassen*)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권태스러운 것(*das Langweilige*)은 ‘붙잡으면서 공허하게 하는 것(*das Hingehaltende und doch Leerlassende*)’으로 제시된다.(148-149) 하이데거는 기분깨우기로서의 시간죽이기와 권태스러운 것에 대한 규정——붙잡혀 있음과 공허해져 있음——을 실마리로 삼아 권태의 세 형식을 규정해 나간다.<sup>6)</sup>

#### (1) 권태의 첫 번째 형식

권태의 첫 번째 형식에 대한 분석은 ‘기차역 보기’를 통해 시도된다.<sup>7)</sup> 4시간이나 남은 기차의 출발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도 지겹

5) “권태”를 “메마름”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살핌, 권태는 “맥없는 동경”이다. 왜냐하면 깊은 권태는 우리의 욕망을 잠재워 어떤 대상에 대한 열망도 깨어나지 않게 하고, 그로써 세계 전체를 온통 메말라 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in: *Sämtliche Werke* Bd. I, Leipzig, Insel 1979, S. 241.)

6) 마르틴 뢰레만(*Martin Doehlemann*)은 권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1. 상황의 권태. 이것은 그 상황만 벗어나면 권태에서 즉시 벗어나는 경우이다. 보기) 누군가를 기다리는 상황, 강의를 듣고 있는 경우. 2. 싫증에 의한 권태. 어떤 것에 질리거나 물렸을 때의 권태. 3. 존재의 권태. 마음이 텅 비어 모든 게 겉돌게 되는 방식의 권태. 4. 창조의 권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질 때의 권태. (*Langeweile? Deutungen eines verbreiteten Phänomens*, Frankfurt 1991, S. 22f. 여기서 스벤젠 지음, 도복선 옮김, 『지루함의 철학』, 서해문집 2005, 74-75 쪽 재인용.)

7) 기차역 권태: “우리는 선로 하나가 분실된 삭막한 기차역에 앉았다. 다음 기차는 네 시간 뒤에 온다. 그 지역은 아무 매력도 없다(*reizlos*).…우리는 시계를 들여다본다. 겨우 15분이 지났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간다. 이리저리 뛰어다녀 본다. 단지 무엇인가를 해 보기 위해. 그러나 아무 도움이 안 된다(*Aber es hilft nichts*).…이리저리 다니는 것조차 귀찮아지고(*überdrüssig*), 우리는 돌멩이에

다. 즉 권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책 읽기’, ‘가로수 헤아리기’, ‘모래 위에 그림그리기’ 등과 같은, 권태에 대한 저항으로 다양한 시간죽이기가 수행된다. 시간죽이기는 길어지는(lang werden will) 시간을 재촉함으로써(zeitantreibend) **짧게 하는 것(Verkürzen)**, 즉 빨리 가게 하는 것이다.(165)

시간죽이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점점 더 느리게 흘러간다. 기다림에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결국 우리는 ‘기다림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속을 태움)하게 된다. **안달(Ungeduld)**은 우리가 권태의 ‘노예’(속박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160-161) 기차역에서 우리는 **시간의 너무나 느린 걸음** 때문에 권태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 기차를 타기 위해 기다려야만 한다. 우리의 권태는 “우리가 **머무적거리는(Zögern)** 시간흐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불잡혀 있음**”을 뜻한다.(168)

우리는 ‘더디 가는 시간’에 불잡혀 있는 동안 그 권태로운 시간을 죽이기 위한 심심풀이를 시도하지만, 우리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다. 사물들로부터 어떤 흥미를 얻고자 했던 심심풀이의 목적은 실패하고 있다. 그 목적의 채워져 있지 않음이 곧 **공허**이다.<sup>8)</sup> 우리는 “아무 할 일 없이 멍하니” 있게 되고, “목적은 이를 길 없이 무기력하게”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

---

앉아서 모래에 여러 모양들을 그린다. 그 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또다시 시계를 봤다는 것을 깨닫는다. 30분이 지났다.”(159 쪽.)

- 8) 권태를 목적과 연관하여 논한 철학자가 바로 **칸트(Immanuel Kant)**이다. 칸트는 권태를 새로운 종류의 경험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느끼는 문명화된 인간의 특징으로 보았다. 이러한 갈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즉 공허감에 사로잡힐 때 권태가 피어난다. 공허감은 ‘시간을 의식’할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식이 생겨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칸트는 그 수단으로 오락 대신 일을 제시했다. 인간은 “일을 해야 하는 동물”인 것이다.(Über Pädagogik, in: Werke in sechs Bänden, Bd. VI, S. 730. 여기서는 스벤젠 지음, 도복선 옮김, 『지루함의 철학』, 서해문집 2005, 97 쪽 재인용.)

한 기다림이 곧 권태를 낳고, 우리는 피어난 권태로부터 달아나지 못한 채 권태로워한다.

권태의 첫 번째 형식은 ‘어떤 것에 의해 권태롭게 됨’으로 정식화된다. 이 형식의 근본 성격은 ‘사물들에 의해 공허해져 있음(Leergelassenheit)’과 ‘머무적거리는 시간에 의해 붙잡혀 있음(Hingehaltenheit)’을 통해 규정될 수 있다. 즉 기차역 권태와 같은 것은, 우리가 사물들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시간적으로 유예되는 가운데, 그 머무적거리는 시간에 의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채 붙잡혀 있을 때 피어오른다.

## (2) 권태의 두 번째 형식

**권태의 두 번째 형식**은 ‘저녁의 초대 자리’의 보기로써 탐구된다.<sup>9)</sup> 초대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시간죽이기의 징후들은 “애써 참으려고 했지만 거꾸 계속된 하품”(189),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고 싶었던 유혹”(190), “시곱줄이나 단추 등을 가지고 놀기”(191), “시가(담배) 피우기”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시간죽이기를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감춘다. 하품은 남들이 보지 못하게 몰래 하고, 식탁 두드리기의 유혹은 억제된다. 초대의 자리에서 권태스러운 것은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되지 않음 때문에 권태의 두 번째 형식은 권태를 불러일으키는 것(권태거리/권태의 대상)과 무관한 방식으로, 즉

9) 초대 자리에서의 권태: “우리는 저녁에 어디로 초대를 받았다(wir sind irgendwo abends eingeladen). 우리는 거기에 갈 필요는 없다).…거기에는 통상의 저녁이 차려져 있고, 거기에 곁들여 식탁의 담소가 펼쳐졌다. 이미 떠날 시간이다. 부인들은 작별할 때뿐 아니라,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다시 모이는 아래나 바깥에서도 ‘참 기분 좋았어’(es war wirklich sehr nett), ‘정말 멋졌어’(es war furchtbar reizend)라고 확인을 한다. …사람들은 만족스럽게 집으로 돌아간다. 저녁에 중단됐던 일을 잠깐 살펴보고, 아침의 일들을 앞서 떠올려 본다. 그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오른다: ‘나는 원래 권태로웠어, 저녁에, 초대(招待)의 자리에서(ich habe mich eigentlich doch gelangweilt, an dem Abend, bei dieser Einladung).’”(187 쪽)



“...에서 권태로워함(Sichlangweilen bei ...”으로 규정된다.(182)

두 번째 형식에서 중요한 바는 초대 자리 자체가 바로 ‘시간죽이기’였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주말 동안 할 일이 없고, 그래서 따분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따분할 주말 시간을 저녁 초대에 참석하는 일로써 때우려 한다. 즉 우리는 자신의 시간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어 ‘자기 자신’에게 준다. 이렇게 지정된 시간은 오직 앞서 계획된 일(초대)만을 위해 사용된다. 초대만을 위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과 비교하자면 ‘**멈춰 선 시간(die stehende Zeit)**’과 같다. ‘멈춰 선 시간’은 우리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그 시간 속으로 구속한다.<sup>10)</sup> 그렇다고 초대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실례가 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초대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딱히 할 일도 없다. 우리는 **초대의 자리에서 멈춰 선 시간에 붙잡혀 있다.**(216-218)

초대의 자리에서 우리는 느긋하게 즐기는 태도를 취한다. 즉 그 자리는 자기와 관련된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리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충족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또한 공허해질 수도 없다. 초대의 자리에서 우리는 본래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추구 내지 충족 욕구를 유예한다. 우리는 일상의 자기 문제를 둘러싼 걱정이나 근심은 잠시 접어둔 채 초대 행사에 몰입한다. 이때 ‘본래적 자기 자신’은 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의 자리를 꺾은 뒤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내면의 공허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형식의 권태에 비하자면 두 번째 형식의 권태는 본질적으로 **보다 깊은 권태**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권태에서의 ‘공허해져 있음’은 단지 충만의 부재를 뜻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교제를

10) 그에 대한 보기를 들자면, 초대의 자리에 어울리는 복장이나 행동 그리고 태도를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초대 예절을 차려야 한다.

별이고 그것들에 몰두하는 그러한 특정의 사물들이 [자신들을 우리들에게] 거절한다는 데 존립한다. 반면 두 번째 권태에서의 공허는 우리의 ‘본래적 자기’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데 존립한다. 이는 시간 관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 형식의 권태 속에서 우리는 ‘더디 가는 시간’이 아니라 ‘멈춰 선 시간’에 붙잡혀 있게 된다.

### (3) 권태의 세 번째 형식

하이데거는 세 번째 형식의 권태를 **깊은 권태(die tiefe Lange-weile)**라 부른다. 여기서는 보기 대신 “**그것이 누군가에게 권태롭다(es ist einem langweilig).**”<sup>11)</sup>는 관용구가 분석된다.(230) 깊은 권태에서의 ‘그것’, 즉 ‘권태롭게 하는 것’은 사물도 아니고, ‘자기 자신’(Selbst)도 아니다. 왜냐하면 깊은 권태에서는 자기 자신조차 ‘무차별적인 아무도 아닌 자’(zu einem indifferenten Niemand)로 전락하기 때문이다.(230) 게다가 깊은 권태에서는 시간죽이기가 빠져 있다.(231) 깊은 권태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시간죽이기는 “가망 없는 것(aussichtslos)”, 아니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것의 명령에 반기를 드는 “일종의 불손한 것”(fast so etwas wie eine Vermessenheit)이다. 시간죽이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깊은 권태에 맞서 시도되는 어떠한 시간죽이기도 힘을 잃고 만다(machtlos).(232)

‘깊은 권태’에서는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을 전체적으로 거절한다.’ 거절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 없음에서는 모든 게 ‘**다 똑같아져 있다(diese Gleichgültigkeit).**’<sup>12)</sup> 깊은

11) 이를 우리말 표현답게 바꿔 본다면 “**사는 게 지겹다.**”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번역은 도이취말로 말해진 관용구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에서 사용된 “그것”(es)은 ‘번개가 친다.(es blitzt)’, ‘천둥이 친다.(es donnert)’, ‘비가 온다.(es regnet)’에서의 ‘비인칭 es’를 말하기 때문이다. 비인칭은 ‘규정되지 않은 것’, ‘알려지지 않은 것(das Unbestimmte, Unbekannte)’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건’이나 ‘운명’을 암시한다.(230)

권태에서 우리는 권태가 물러가길 바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는 공허하다. 깊은 권태에서는 이러한 ‘다 똑같아짐’의 너비가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할 정도로 팽창한다. 그로써 우리는 ‘전체에서의 공허’ 속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있는 것 전체’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 그것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깊은 권태는 이 요구가 거절되고 있을 때 피어난다.

깊은 권태에서 ‘있는 모든 것’은 ‘다 똑같은 것’, 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즉 우리의 모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로써 오직 ‘자기 자신’만이 단독적으로 남게 된다. 깊은 권태의 공허 속에서 현존재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만 쏠린다. 즉 권태가 우리를 ‘우리를 자신’으로 부른다. 즉 침체화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사태를 “현존재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의 **유일한 창끝(정점)으로 강제함**(ein Hinzwingen auf die einzige Spitze)”<sup>13)</sup>이라 규정한다.(245-246) 깊은 권태 속에서 현존재는 ‘자기 자신’으로 지시되어 있고, ‘자기 자신’으로 불러내져 있다.<sup>14)</sup> 현존재의 관심은 온

12) 이 도이취 낱말은 “무차별성”, “무관심”, 또는 “아무래도 상관없음”, 또는 “어떠하든 상관없음” 등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사물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 똑같다’[매일반(一般)]는 뜻으로 새겼다.

13) “창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시간의 번개’에 빗들 수 있다. 이 번개는 ‘거기에 있음(현존재)’이, 決斷性 속에서, 자신의 가장 고유한 ‘있을 수 있음(존재 가능성)’으로 ‘다가가면서(到來)’, 자신의 가장 고유한 ‘있어왔음’으로 ‘되돌아오면서(既在)’, 決意의 狀況과 ‘마주하는(現在)’ 방향으로 쏘여나간다. 이 결의의 “순간”은 “내다봄(Absicht)”과 “되돌아봄(Rücksicht)” 그리고 “바라봄(Hinsicht)”을 위한, 즉 그 ‘봄들’을 가능케 해 주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최초인 ‘빛(der Blick/der Blitz)’이 터트려지는 지점을 말한다.

14) 이 **불러냄**(das Anrufen)은 『존재와 시간』 제58절 **양심 분석**에서는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 있는 ‘사람들-스스로(das Man-selbst)’에게서 그 ‘스스로(das Selbst)’만을 불러내어, 그 ‘스스로’에게 다시금 그의 ‘있을 수 있음’을 호소하는

통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궁극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으로 향해 있다. 이러한 쏠려 있음이 곧 ‘**붙잡혀져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깊은 권태는 우리의 관심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이 ‘자기 자신’에게 떠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있지만, 그것의 부담 내지 압박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즉 있음의 사실에 대한 압박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가능성에 대한 모든 요구가 공허해지고 만다. 우리는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도 결단 내지 결의를 다질 수 없다. 깊은 권태에서 우리에게는 전체에서의 압박이 부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대면하게는 되지만, 결단의 순간은 한없이 유예되고, 우리는 그저 권태 자체가 물러가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 2) 이상(李箱)의 수필 『권태』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이제 권태와 관련한 이상의 수필 한 편을 하이데거의 권태 분석을 참고하여 그리고 기분학적 열개<sup>15)</sup>를 이용하여 분석해 본다. 그를 통해 이상이 느낀 권태의 기분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수필은 일제강점기에 속하는 1937년에 발표되었다. 수필의 내용은 이상 자신이 조선의 어느 시골(평남 성천)로 요양 갔을 때의 경험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상의 경험담이 전적으로 개인의 경험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의 수필에는 일제 강점기라는 극한 상황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배제의 원인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은 이상(李箱)의 권태 개념 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

(aufrufen) 부름을 말한다. 양심의 부름(Ruf)은 그 부름을 듣는 자는 ‘스스로가 죄가 있다(Ich bin schuldig/ 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반면, **권태에서의 ‘자기 자신’으로 불러냄**은 현존재의 존재 가능성의 ‘묵혀 있음’[휴경 상태에 놓여 있음]을 깨우쳐 준다.

15) 기분의 구조에 대해서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구연상, 청계 2002) 살핌.

### (1) 권태거리와 시간죽이기

수필 『권태(倦怠)』<sup>16)</sup>에서 기분의 열개와 관련하여 우리가 우선 주목해 볼 수 있는 바는 ‘권태스러운 것’이다. 하이데거의 권태거리는 우리를 공허하게 붙잡는 것인데 반해 이상의 경우는 **단조(單調)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 내지 “아무런 맛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sup>17)</sup> 단조(單調)는 “똑같은 상태의 되풀이(반복, 反復)”를 말한다. 이는 새로움이나 다름 등에 대한 기분, 즉 놀라움이나 낯섦의 기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상(李箱)의 권태거리는 시간의 길어짐보다는 ‘**사건의 되풀이**’에 의해 규정된다.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상(李箱)이 이미 되풀이하여 만나고 있는 사건들이다. 그 사건들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분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더 나아가 새로운 사건 자체가 없다. 권태거리는 제 맛을 잃어버린 싱거운 것, 김이 빠지고 맥이 빠져 흥이 나지 않는 것, 아무런 흥분이나 긴장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날마다 똑같이 반복된다. 이상(李箱)의 일상 전체가 단조로운 반복의 연속이다.

시인은 자신의 권태를 의식하고 있다. 다만 그가 권태에 빠졌다는 증거는 갖가지 **권태죽이기**를 통해 드러날 뿐이다. 취 서방의 조카와 장기 두기, 물가에 앉아 사색하기, 웅덩이 구경하기, 길을 걸어보기, 세수하기, 송사리 떼나 암소 그리고 아이들 구경하기…. 하지만 온갖 권태죽이기의 노력에도 권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까닭은 권태죽이기 자체가 너무나 단조로운 일, 즉 ‘**똑같은 일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

16) 김윤식 엮음, 『李箱문학전집3 隨筆』, 문학사상사 1998. 141 쪽부터 살핌.

17) 권태거리의 보기는 다음과 같다: 곡선으로 치면 “굴곡 없는 것”, 펼쳐진 것으로 치면 “한없는 것”, 색깔로 치면 “똑같은 색”, 모양으로 치면 “그게 그것 같은 것”, 날씨로 치면 “더위의 계속”, 사건으로 치면 “똑같은 반복”으로서 개울가, 나뭇잎, 초록 별판, 지평선, 구름, 전신주, 웅덩이, 개, 암소, 별 등 이상(李箱)이 만나는 모든 것이 다 권태거리가 된다.

기 때문이다. 권태죽이기는 거듭 권태를 낳을 뿐이다. 권태를 죽이려 했던 모든 심심풀이가 실패할 때, 그 즉시 공허감이 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에게는 아무 할 일 없고 만다. 그때 시인은 머뭇거리며 더디 가는 시간에 붙잡히고 만다. 공허한 시간은 답답하리만치 더디게 흘러간다.<sup>18)</sup>

처음 권태가 시인을 엄습했을 때 시인은 개울가로 벌판으로 그리고 마을로 뭔가 흥밋거리를 찾아 다녔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시인은 자신의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한 채 자신의 내부로 여행을 떠난다. 즉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려 한다. 이는 시인이 자신에게 반복되는 ‘공허하고 더딘 시간’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이데거의 경우 이는 “자신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이 된다. 시인은 자신에게 권태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권태를 미리 피하려 하고 있다.<sup>19)</sup>

그런데 이는 거꾸로 시인마저 권태거리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의 성찰은 자기의 내면에서 권태를 없앨 수 있는 뭔가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성찰의 시도마저 실패한다.<sup>20)</sup> 성찰의 실패는 성찰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성찰의 성과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생각의 자극도 없고, 새로운 생각도 없으며, 생각에 대한 압박 자체도 없다. 시인은 시를 쓰기 위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지속해야 하지만, 되풀이되는 권태는 시인의 모든 욕망을 잠재워 버리고 말았다. 시인은 생각

18) 하이데거가 말하는 ‘첫 번째 형식의 권태’에 해당된다.

19) 이는 권태의 ‘두 번째 형식’에 비교될 수 있다. 일상의 반복되는 주말이 따분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시간을 미리 지정해 둬으로써 스스로 권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손을 쓰는 일을 말한다.

20)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어제까지도 죽는 것을 생각하는 것 하나만은 즐거웠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조차 귀찮다.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눈 뜬 채 줄기로 하자.”(『권태(倦怠)』의 네 번째 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는 있지만, 그 의무감이 실제로 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즉 시인은 자신의 할 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단이나 결의도 행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시인은 권태가 사라지기만을 바라면서 수수방관한다.<sup>21)</sup>

## (2) 권태의 기분성격

우리는 앞서 권태거리와 관련한 하이데거의 기분성격을 “공허해져 있음”과 “불잡혀져 있음”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허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기대했던 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마음상태를 말하고, 구속성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상황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것을 뜻한다. 이상(李箱)의 권태 성격은 어떠한 낱말들로써 규정될 수 있는가?

수필 「권태」는 “어서-차라리”라는 낱말로 시작된다. “어서”는 어떤 일이 더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 낱말은 시인이 ‘더디 흐르는 시간’을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시인은 시간의 흐름을 재촉하려 한다. 이는 시간 자체가 단조로운 것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권태로운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들음을 표현한다. “차라리”라는 말은 시인이 어떤 대안적 상황의 도래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 즉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인은 다양한 권태죽이기를 시도해 봤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고백한다. 시인은 권태가 물러나리라는 기대에 대해 체념하고 있다. **체념**은 권태 죽이기와 관련하여 시인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니 시인은 권태를 피하지 못한 채 권태를 견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쨌든 그러한 견딜 자체라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 권태를 견뎌야 하는 유일한 의미는 시인에게는 언젠가

21) 이는 ‘권태의 세 번째 형식’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이 시를 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놓인다.

그러나 시인의 권태는 그 자신의 할 일인 ‘시 쓸 일’마저 권태로워지고 말았다는 사실로부터 피어나기 때문에, 시에 대한 기대는 현재 **공허**할 뿐이다. 시인은 이러한 공허와 맞서 싸우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공허는 우선 외부 세계로부터 유래한다. 처음에 자신을 놀라게 했던 ‘신선한 초록빛’이 닳새도 못 되어 권태거리로 전락해 버렸듯이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똑같이 권태거리로 탈바꿈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권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은 사색의 반추능력마저 잃어버린 암소와 같은 처지로 전락해 버렸고, 시인은 결국 오랜 세월 권태의 환경에 길들여진 농민들처럼 암흑 속에 갇히고 만다.<sup>22)</sup>

이상(李箱)의 권태는 하이데거의 경우와 달리 환경의 압박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공허한 시간의 유래가 다르다. 하이데거의 경우, 권태는 사람들이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피어나는 것인 반면, 이상(李箱)의 경우에는 인간 자신의 본성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시인이 자신의 권태에 대해 “**희귀한 겸손(謙遜)**”<sup>23)</sup>이라는 규정을 붙인 것을 통해 잘 설명된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행위나 마음가짐을 뜻한다. “희귀하다”는 말에는 비아냥거림의 뜻이 놓여 있다. 시인의 눈에 소는 인간을 두렵게 할 만한 강력한 무기인 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가축으로 전락해 버린 바보이다. 소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거세해 버린 희한한 동물인 셈이다. 게다가 소는 그러한 사실마저 망각한 채 무사태평으로, 아니 아무런 권태마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천치(天痴)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희귀한 겸손”을 갖춘 소나 “먹고 잘 줄 아는 시체”와 같은 농민은 아무런 권태조차 느끼지 못한다. 즉 겸손함은 권태의 성격일 수

22) “나는 이 대소(大小)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 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권태(倦怠)」의 일곱 번째 글)

23) 세 번째 글 살핌.



없다. 이상(李箱)은 권태 속에 빠진 자신의 상태를 “**암흑 속에서 오늘 오늘 떨고 있다**”는 말로 토로한다.<sup>24)</sup> 그의 권태 성격은 두려움에 의해 각인된다. 암흑과도 같은 권태가 두려운 까닭은 그것이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권태의 기본 성격으로서의 **두려움**은 시인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만 생겨날 수 있다. 시인에게 드러나 보이는 미래는 ‘권태로운 오늘’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시간이란 오직 “권태의 내일”<sup>25)</sup>뿐이고, 계절은 모두 지리해서 죽을 만치 길다. 아니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권태 속에서 시인이 붙잡혀 있는 ‘공허한 시간’은 **바보들의 시간**이다. 거기에서 모든 일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진행된다.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저항도 없고, 문명도 없다. 하지만 시인은 불행하게도 깊은 권태마저 감지할 수 있는 예민한 자의식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권태 없는 세상에서 극권태에 시달린다. 그는 자신의 모든 미래에 떡 버티고 서 있는 “**홍명한 형리(刑吏)**” 같은 ‘내일’을 마주하고 서 있다.<sup>26)</sup> 여기서 내일은 ‘내일의 죽음’을 말한다. ‘오늘에 주어진 내일’은 자신의 모든 내일을 처형하는 망나니이다. 시인은 목베임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오들오들 떤다. 그것은 무서움의 증표이다.

이상(李箱)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 앞에서 **무서운 권태**, 즉 자신의 미래를 위협하는 권태에 사로잡혀 있다. 권태의 시간은 시인의 모든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 버리길 거부한다. 시인에게 미래는 없다. 모든 것은 공허하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처럼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 속에서, 달리 말해, 의미 충만한 삶의 유예 속에서 끝까지 의미의 출현을 포기하지 않는다. 즉 시인은 권태에 맞서 싸우려 한다.

24) 「권태(倦怠)」의 일곱 번째 글 마지막 줄 살핌.

25) 두 번째 글 살핌.

26) 이러한 마주섬의 한 대응방식이 “잠” 또는 “죽음”이다.(일곱 번째 글에서의 살핌)

시인은 자기 성찰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sup>27)</sup> 끝내 자기 성찰을 포기하지 않는다. 시인은 자신의 배고픔에 감각의 눈을 뜨고, “정열의 생물”로 명명한 불나비를 통해 자신에게 정열이 없다는 것과, 자신의 몸을 불사를 ‘불’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즉 모든 곳이 암흑으로 채워져 있을 뿐이다. 현재뿐 아니라 모든 미래까지. 그럼에도 시인은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즉 **암흑 같은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 이상(李箱)에게 피어났던 권태의 기분 성격은 “두려운 공허에 빠져 들어 있음”과 “암흑 같은 미래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규정할 수 있다.

### (3) 권태의 시간성격

하이데거는 권태의 시간성격을 “머뭇거림”과 “멈춰 섬” 그리고 “결단의 순간이 유예되고 있음”으로 규정했다. 이 세 가지 성격은 ‘흐름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주어진 것들로서<sup>28)</sup> 이러한 흐름의 다양한 양태를 표현할 뿐, 권태 자체의 시간 성격을 제대로 규정하지는 못한다. 나는 이상의 수필 권태(倦怠),<sup>1)</sup>를 통해 권태의 시간성격을 “**마냥-지루함**”과 “**이윽고**”이라는 말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나는 “**마냥**”을 두 갈래로 뜻매김하고자 한다. “마냥”은 첫째, “마찬가지 모양”의 뜻으로, 둘째, “마찬가지로 줄곧”의 뜻으로 새겨질 수 있다. 첫째 뜻은 모습이나 상태의 똑같음을 나타내고, 둘째 뜻은 “한없음”을 뜻한다. “마냥”은 실제의 똑같음이나 말 그대로의 “한없음”을 뜻하지 않고, 그러한 기분을 표현하는 말이다. “마냥”은 **단조로움의 상태가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다는 느낌**을 담고 있다. “지루함”은 “지리(支離)

27) 네 번째 글 살핌.

28) 물론 “결단성”이 ‘시간의 흐름’이 끊긴 ‘사건의 순간’(카이로스)에 일어나긴 하지만, 권태의 시간에서는 그러한 끊김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하이데거가 제시한 권태의 시간 성격은 결국 ‘지금의 연속’이라는 시간 관념에 의해 규정된다.

함”으로서 “지류(支流)가 너무 가리가리 갈라져 나가는 듯한 느낌”, 즉 “지나칠 정도로 자잘하게 나누어지는 듯한 느낌”, 따라서 진척은 없이 **지리멸렬(支離滅裂)**하게 **똑같은 일만 되풀이**되어, 마치 시간의 흐름이 벗어버릴 것만 같은 상태를 나타낸다.

“마냥”은 현재의 단조로운 상황이 줄곧 지속될 것이라는 사태를 내보이고, “지루함”은 똑같은 상황이 되돌아오는 간격이 느슨해지거나 늘어진다는 것, 달리 말해, 되풀이되는 단계들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문학적 표현을 사용해도 좋다면, “지루함”은 일종의 “끈적거림”, 즉 “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마냥 지루함**”은 “현재의 단조로운 상황의 한없는 길어짐”이다. 이때 되풀이되는 현재는, 그것이 권태 속에서 한없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분절하지 못한다. 마냥 지루한 시간은 마치 숨 막힐 듯이 끝없이 펼쳐진 “**닐파란 백지(白紙)**”<sup>29)</sup>와도 같다. 이 시간의 백지 위에는 아무 것도 그려져 있지 않고, 또 그릴 것도 없다. 게다가 백지의 현재 앞에는 또 다른 현재들의 백지가 “**홍맹한 형리**”처럼 버티고 서 있다.

권태의 시간은 형리(刑吏)처럼 시간을 멈춰 세운다. 멈춰진 시간은 정체된 고속도로처럼 시간의 정류장으로 바뀐다. 시간은 마치 정지된 화면처럼 **공간화** 되고 만다. 권태 속에서 시간 위의 모든 점들은 축 늘어진 엇가락처럼 서로 달라붙어 있다. “마냥 지루함”은 “촘촘히 구성되고 분절된 도시적(근대적) 의미의 시간”이 아니라, “**흐르지 않는 시간**”<sup>30)</sup>을 뜻한다. 이때 ‘**흐르지 않음**’은 시간의 흐름이 분절되는 방식이 권태를 통해 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시인 이상(李箱)에 따를 때, 권태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이윽고-방식**”으로 흘러간다.<sup>31)</sup> ‘이윽고-시간’은 그 지나가는 것조차 잘 감지되지

29) 첫 번째 글 살핌.

30) 이경훈, 『이상, 철천의 수사학』(소명출판, 2000) 304 쪽 살핌.

31) “**이윽고** 밤이 오면 또 거대한 구렁이처럼 빛을 잃어 버리고 소리로 없이 잔다. 이 무슨 거대한 검은손이냐.” “이윽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失色)한다.”(두 번째 글)

않다가 갑자기 밤이 오고, 또 그러다가 어느덧 계절이 바뀌곤 하는 방식으로 흐르는 시간을 말한다. 이 시간은 인내에 대한 보답으로서 주어지는 시간이다. 공허하고 두려운 어둠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참고 견디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상황 자체가 변화되어 있다. 하지만 “**마냥 지루한 시간**”은 한 뭉텅이의 “단조로운 연속체”로 움직이고, 그 시간의 흐름은 결과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 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시간의 흐름이 마치 멎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권태 속에서는 모든 것이 공허하다. **시인의 사명**은 되풀이되는 공허를 끝까지 성찰하는 것이다. 공허한 것에 대한 성찰은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갈가리 찢어지지만, 시인은 ‘이윅고-방식’으로 찾아올 변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다. 권태 속에서 시인은 결단도 선택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듯’ 자연의 섭리에 따른 희망 한 가닥을 붙들고 있다. 이 한 줄기 소망을 갖고 시인은 서로 달라붙어 완전히 멈춰 서려 하는 시간의 물레바퀴를 사력을 다해 돌리고 있다. 시인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서로 끈끈하게 달라붙어 4차원 공간이 기하학의 정태적 공간으로 화석화 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그런데 권태의 기분 가운데 ‘이윅고-방식’으로 흘러가는 “**마냥 지루한 시간**”이 시인에게 더없이 길어지고 있다. “더-없음”은 “끝없음” 내지 “한없음”을 뜻한다. “**마냥 지루함**”은 지루함 자체만을 되풀이할 뿐 그밖의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는 사태를 보여 준다. 현재 시인에게 피어난 권태는 ‘미래가 백지같이 끝없이 펼쳐진 시간’에 의해 규정된다. 그것은 “**단조-미래**”이다. 거기에는 미래의 변화가 없다. 심지어 죽음조차 망각된다. 미래가 망각된 시간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이다. 죽음에는 내일이 없지만, 권태 속의 내일에게는 공포스럽게도 죽음이 없다. 권태의 시간 성격으로서의 ‘**마냥 지루함**’은 죽음에 대한 위협보다 더 두려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 (4) 권태의 까닭

하이데거는 권태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에 대한 결단을 자꾸만 뒤로 미루기 때문에, 즉 **결단의 부재 때문에 피어난다**고 보았다. 이때 우리가 빠져든 세계, 즉 비본래적인 자기 자신은 의미를 잃어가는 ‘공허한 상황’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상황의 시간적 길이는 너무 길어진다. 하이데거의 경우, 권태의 까닭은 우리가 공허하고 비본래적인 세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을 추구하려고 결심하지도 못한다는 데 있다. 즉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결단을 뒤로 미루어 두고만 있다.

반면 「권태(倦怠)」의 시인이 권태에 빠져든 까닭은 “**모든 것에서 절연된 생활**”<sup>32)</sup>에 있다. “절연(絶緣)”은 “관계를 끊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함”을 뜻한다. 이는 곧 고립됨을 의미한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절연’은 모든 것의 의미가 ‘똑같아진다’는 하이데거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절연 상태는 똑같은 상태와 달리 누군가의 생활이나 일상이 갑자기 고립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절연은 누군가의 생활에 심각한 변화가 초래되어 그가 더 이상 기존의 일상생활을 전혀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권태가 일상생활의 “끊어져 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권태는 이전 생활로 되돌아감으로써, 즉 “다시 이음”을 통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권태(倦怠)」속에 나오는 성천 마을은 이상(李箱)이 한때 머물렀던 시골이었고, 도쿄는 이 수필을 쓸 때 이상이 머물렀던 곳이었다. 한 곳은 벽촌(僻村)이요, 다른 한 곳은 세계에서 가장 근대화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두 곳 모두 이상에게는 **낯선 곳**, 즉 그 자신이 친숙해 있던 서울과는 완전히 절연된 곳이었다. 이 두 곳 모두는 시인이 자신의 “시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시인은 “자기 세계”와 완전히 절연된 두 곳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

32) 일곱 번째 글 살핌.

살 수밖에 없었다.

권태는 이러한 ‘다시 이어짐’에 대한 기다림의 한 기분이다. 권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예상보다 너무 길어질 때, 즉 저 절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될 때 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끊임(절연)이 낯설음으로 다가오는 곳에서 권태는 피어날 수 없다. “권태의 까닭”으로서의 “끊겨 있음”은 어떤 편안한 상태여야 한다.<sup>33)</sup> “**편안한 절연 상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압박이나 강요가 없어야 한다. 권태에서의 편안함은 “아무 할 일도 없다”는 말을 통해 알려진다. 권태로우미[권태로운 사람]는 모든 일거리로부터 끊어져 있다. 이러한 “끊겨 있음”은 강제에 의한 것이 기보다 “스스로의 선택 내지 결단”에 의한 것이다. 끊임을 통해 우리는 “단조로운 세계” 속에 갇히게 된다. “**단조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이 되풀이될 뿐, 새로운 것은 없다. 이러한 세계 속에 갇힌 자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권태는 이러한 “**이중적 절연 상태**”, 즉 “겹으로 끊겨져 있음” 때문에 피어난다. 첫째는 “할일-없음”의 의미에서 “세계로부터의 끊겨 있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미에서 “가능성으로부터의 끊겨 있음”이다. 세계의 끊임은 세계 안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더 이상 “하나의 도구”로서, 즉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이룰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가능성의 끊임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추구하거나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겹-끊겨져-있음”은 “자기 가능성”으로 말미암는 “마음졸임”도, “도구 사용성”에서 발생하는 “마음쏙음”도, “다르미[다른 사람]와의 관계맺음”에서 생겨나는 “마음쑈”도 차단하고 만다. 권태는 이러한 “마음-관련들”에 대해 질력이 나는 기분을 말한다. **마음의 질력이 이는 까닭**은

33)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이기상·강태성 옮김, 까치 2001) 274-283쪽 살핌.

그러한 마음들이 나아갈 수 있는 ‘자기’나 ‘세계 안의 것들’이 모두 끊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헛물켜기”인 셈이다. 그렇다고 마음 자체마저 버려지고 있지는 않다. 권태로우미[권태로운 사람]는 “끊겨져 있음”을 직시한 채 그 끊겨져 있음이 다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에게는 바로 이 기다림만이 허용되고 있다. 권태는 이렇게 “겹으로 끊겨져 있음”만을 바라보면서 아무 할 일 없이 단조로운 세계 속에 지겹도록 마냥 지루하게 갇혀 있을 때의 기분을 뜻한다.

### 3. 끝맺기

이 글에서 나는 이상(李箱)의 권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권태의 기분 열개는 기분학의 방법을 통해 제시된 바를 따랐고, 그 구체적 내용 분석을 위해서는 하이데거가 제시했던 권태의 현상학을 짧게 요약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이데거의 권태 분석은 권태의 세 형식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권태의 첫 번째 형식은 “어떤 것 [권태스러운 것]에 의해 권태롭게 됨”으로 정식화되었고, 두 번째 형식은 “어디[저녁 초대 자리]에서 권태로워함”으로 명명되었으며, 세 번째 형식은 “그것이 누군가에게 권태롭다”는 표현을 통해 제시되었다.

권태의 첫 번째 형식에서 권태는 우리가 ‘더디 흐르는 시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빠져들고자 하는 사물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피어난다. 두 번째 형식의 권태에서의 독특함은 초대의 자리 전체, 즉 우리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 자체가 바로 시간죽이기였다는 점에 있다. 이 때 중요한 바는 우리가 초대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가 흐르는 시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흐름에서 앞서 절단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선 시간’에 붙잡혀 있게 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그 동안 정작 ‘본래

적 자기 자신'을 방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즉시 우리는 공허를 느낀다.

세 번째 형식의 권태는 이유 없는 권태이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지겹게 느껴질 때의 권태를 말한다. 이 권태에서는 '있는 것이 그 전체에서 자기를 거부한다'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써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 이러한 전락의 위험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있음의 사실과 직면하게 되고, 그 있음을 총체적으로 가능케 하는 궁극적인 것으로 강제되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신은 그러한 강제의 압박을 느끼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을 선택할 결심조차 굳히지 못한다.

나는 하이데거의 권태 분석을 참고로 하여 그리고 권태의 기분 열개에 맞춰 이상(李箱)의 수필 「권태(倦怠)」를 분석했다. 가장 먼저 '권태거리'에 대한 해명이 요구되었다. 하이데거의 권태거리가 '공허하게 붙잡는 것'이라면, 이상(李箱)의 그것은 '단조로운 것'으로서 제시되었다. 단조로움은 '같은 상태의 되풀이'를 뜻한다. 이러한 권태거리에 의해 불러일으켜진 권태는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권태죽이기를 통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권태의 기분성격이 “어서”와 “차라리”라는 두 낱말을 통해 임시적으로 제시되었지만, 그 둘은 다시금 ‘공허해져 있음’과 ‘붙잡혀져 있음’의 측면에서 검토되었고, 결국 “희귀한 겸손”이라는 이상(李箱) 자신의 표현을 통해 종합되었다. 시인이 처한 권태의 기분 성격은 결국 “암흑 같은 미래에 사로잡힌 채 두려운 공허 속에 빠져 들어 있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그리고 권태의 시간 성격은 “마냥—지루함”과 “이윽고—방식”이라는 말을 통해 밝혀졌다. “마냥—지루함”은 백지처럼 평면적으로 공간화 된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백지는 의미의 사라짐을 뜻하고, 공간화는 시간의 흐름이 분절되지 못한 채 현재가 한없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태의 시간 성격에서 독특했던 점은 권태 속에서 공간화 된 시



간의 길이가 “이윽고-방식”으로 어쨌든 흘러간다는 점이었다. 권태의 시간은 ‘단조로운 연속체’를 단위로 하여 힘겹게 굴러간다. 시인은 바로 그러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사명을 갖는 자이다. 마지막으로 권태의 까닭은 “모든 것에서 절연된 생활”로서 밝혀졌다. “절연(絶緣)”은 “관계를 끊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함”, 즉 고립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권태의 까닭으로서의 절연은 “**편안한 절연**”, 즉 외부의 어떤 직접적 압박이나 강요에 의한 절연이 아니어야 할 뿐 아니라, 세계 전체는 물론 자기 자신의 가능성으로부터도 동시에 끊긴 절연이어야 한다. 권태는 이러한 이중적 절연 상태에서 아무 할 일 없는 단조로운 세계 속에 마냥 지루하게 갇혀 있을 때의 기분을 뜻한다.

이 글에서 나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시인이었던 이상(李箱)이 기록했던 권태 현상을 구조적으로 해명해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상(李箱) 자신의 삶의 궤적이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기분 분석에서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M.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 1998.
- M.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세계-유한성-고독』, 이기상·강태성 옮김, 까치, 2001.
- 구연상,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 청계, 2002.
- 구연상, 『후회와 시간』, 세림M&B, 2004.
- 김윤식 엮음, 『李箱문학전집3 隨筆』, 문학사상사 1998.
- 스벤젠, 『지루함의 철학』, 도복선 옮김, 서해문집, 2005.
- 이경훈, 『이상, 철천의 수사학』, 소명출판, 2000.
- 파스칼, 『팡세』, 김형길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Arthur Schopenhauer,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in: *Sämtliche Werke* Bd. I, Leipzig, Insel 1979.
- Martin Doehleemann, *Langeweile? Deutungen eines verbreiteten Phänomens*, Frankfurt 1991.

<Zusammenfassung>

Die Langeweile bei Lee, Sang(李箱)

Yeon-sang Gu

Es handelt sich um den Begriff der Langeweile bei Lee, Sang(李箱). Für diese Arbeit habe ich die Analytik von der Langeweile bei M. Heidegger in Betracht gezogen und die Verfassung der Stimmung gebracht. Heidegger hat die drei Formen der Langeweile klassifiziert. Die erste Form der Langeweile wird „das Gelangweiltwerden von etwas“, und die zweite wird „das Sichlangweilen bei...“, und die letzte wird „es ist einem langweilig“ gesetzt.

Nach der Verfassung der Stimmung, das Worüber der Langeweile, d.h. das Langweilige bei 'Die Langeweile(권태)', von Lee, Sang(李箱) ist das Eintönige. Der Sinn von „eintönig“ ist „die Wiederholung des gleichen Zustandes“. Und der Stimmungscharakter der Langeweile ist durch die Wörter „schnell“, „vielmehr“ und letztlich „die seltsame Bescheidenheit“ als der Ausdruck von Lee bestimmt. Ich habe diesen Charakter als „die Leergelassenheit im Hingehaltenheit auf die finstere Zukunft“ aufgeklärt. Ich habe den Zeitcharakter der Langeweile als „die ganz zu lang“ und „die Weise des Verstopft-werdens“ gesehen. Schließlich habe ich das Worumwillen der Langeweile von Lee im Hinblick auf „die vom allen gebrochenen Alltäglichkeit“ untersucht.

Gliederung: Phänomenologie, Hermeneutik, Stimmungslogie

Schlüsselwörter: Langeweile, das Langweilige, die Form der Langeweile,  
der Charakter der Stimmung, das Worüber der Langeweile,  
das Worumwillen der Langeweile, der Zeitvertreib